

■ 2015 상하이 국제모터쇼 가 보니...

# 친환경차 대세... 업체마다 전기차 홍보 주력

축구장 49개 크기 전시장  
세계 첫 공개 차량 109대

기아차 대형차 K9 출시  
중국 시장 공략 본격화

지난 21일 시작된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차 박람회 '2015 상하이 국제모터쇼'에서는 전 세계의 모든 차를 한눈에 볼 수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2000여 자동차·부품업체가 참가한 모터쇼엔 총 1343대의 차량이 전시됐으며 이중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차량만 109대, 아시아 최초로 선보이는 차량도 44대나 됐다. 출품된 차량은 전시공간 35만㎡(축구장 49개 크기)를 가득 채웠다. 전시공간은 2년 전 28만㎡에서 올해 35만㎡로 25%나 커졌다. 전시공간이나 참가 업체 수, 세계 최초 공개 차량 규모에서 이미 세계 5대 모터쇼 중 하나인 일본 도쿄모터쇼를 넘어섰다는 평가도 나온다.

◇기아차 중국 대형차 시장 본격 공략...  
현대화 SUV도 출시=기아차는 '신형 K5'를 중국에 최초 공개했다. 이와 함께 프리미엄 대형 세단 'K9'을 중국 시장에 공식 출시해 중국 대형차 시장 본격 공략을 선언했다.

기아차 중국 합작법인인 동평위에다기아(東風悅達起亞) 소남영 총경리(부사장)는 "이번에 선보이는 신형 K5는 기존의 스포티한 감성에 고급스러움과 역동적인 이미지를 더해 완성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라며 "K9은 기아차의 최신 기술이 집약된 프리미엄 대형 세단으로 중국 대형차



지난 20일 개막한 '2015 상하이 국제모터쇼' 언론공개일 행사에서 동평위에다기아(東風悅達起亞) 소남영 총경리(왼쪽에서 두 번째)와 중국 정부 및 현지 관계자들이 신형 K5를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아차 제공>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K9은 기아차가 중국 시장에 최초로 출시하는 프리미엄 대형 세단이다. 기아차는 올 하반기 중국형 신형 K5도 출시할 계획이다.

현지 시장을 노린 현지화 모델도 잇따라 선보였다. 중국 단독 모델인 'K4'는 K7처럼 생겼지만 작은 차체에 역동성을 강조한 디자인을 가졌다. 성장하는 SUV 시장을 겨냥, 지난 3월 중국시장을 타깃으로 단독 출시한 소형 SUV KX3도 주목을 받았다.

중국어로 아오파오라는 차명이 붙어 있는데 '자신감 있게 나아가다'라는 뜻이다. 지난해 출시된 중국 전략형 준중형 해치백 K53도 전시됐다. 이 차는 한류스타 이민호가 광고모델이다.

◇대세는 친환경차...메이커마다 시장 선점 나서=중국을 현재 전세계 자동차 업계의 흐름인 친환경차의 각축장이 될 전망이다. 특히 중국 정부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전기차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실제 행사 기간 상하이 도심에서는 전기차를 광고하는 완성차 업계의 행사가 줄줄이 열렸으며 신천지(新天地) 같은 신도심에도 전기차 체험시설이 들어서 있었다. 지난해 중국에 진출한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 역시 곳곳에 간판을 걸고 영업중이었다.

최근 강화되고 있는 중국 정부의 환경 규제에 맞춰 친환경차는 103대가 출품됐다. 상하이시 정부는 하이브리드·PHEV 등 친환경차에 1000만원에 이르는 번호판 발급료를 면제해준다. 현대차는 쏘나타

하이브리드와 PHEV, 투싼 연료전지차와 디젤 PHEV 등 4개 모델을 출품했다. 기아차 역시 전기차 '쏘울 EV'를 전시했다. 쌍용차는 아시아 최초로 소형 SUV '티볼리'의 전기차 버전 '티볼리 EVR'을 공개했다.

BMW는 PHEV 방식의 대형 SUV 'X5 X드라이브40e'를 상하이모터쇼를 통해 아시아에 처음 공개했다. 아우디는 중국 전용 PHEV 차량인 'A6L e트론'을 발표했다. 중국 파트너인 디자자동차와 합작으로 개발한 차량이다. 불보도 중국 전용 PHEV 차량인 'S60L T6'을 공개했다. 닛산이 중국 전용 세단인 '라니아'를, 뷰익이 '웨이링'(베라노)을 내놓는 등 세단에서도 중국 전용 모델이 잇따랐다.

/상하이=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143.89 (-0.90)      금리 (국고채 3년) 1.71%
- ▼ 코스닥 703.34 (-11.18)      ▼ 환율 (USD) 1079.60원 (-3.80)



### 모아주택산업 '소촌동 모아엘가 에듀퍼스트' 분양

모아주택산업이 24일 '소촌동 모아엘가 에듀퍼스트'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분양에 나선다.

대규모 택지지구인 수완지구와 선운지구 사이에 들어서는 광산구 소촌동 모아엘가 에듀퍼스트는 지하 1층~지상 15층 4개동 규모이며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59㎡의 소형 아파트로 구성된다. 남향 위주로 단지를 배치했고, 스트리트형 단지 상가로 간편한 소풍까지 누릴 수 있다.

단지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어룡초·정광중·정광고가 있는데다 대형 마트와 병원, 학원가 등 편의시설이 용도 편리하다. 평동공단, 소촌농공단지 등 주변 배후수요가 풍부한 것도 장점이다.

무진대로와 상무대로 등을 이용, 주변 수완지구와 상무, 선운지구 등으로

이동이 편리하며 광주도시철도 1호선 송정공원역도 가깝다. 아파트와 인접한 어룡산은 앞으로 문화관광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곳에는 빛과 예술 센터, 식물원, 야외공연장, 골프장, 호텔 등 다양한 시설의 테마파크가 들어설 계획이다.

소촌동 모아엘가 에듀퍼스트는 계약금 1500만원에 정액제, 중도금 전액 무이자(60%), 전매 무제한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오는 2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9일 1순위, 30일 2순위 접수를 진행한 다. 다음달 8일 당첨자 발표 이후 13~15일 3일간 계약접수를 실시한다. 입주는 오는 2017년 6월로 예정되었다.

견본주택은 광주시 북구 중흥동 323-5번지에 있다. (문의, 062-523-2007). /임동률기자exian@

## 한전, 하노버박람회서 1억644만달러 수출 상담

협력사 부스 임차비·전시 설치비 등 100% 지원도

한국전력이 지난 13~17일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2015 하노버 국제 산업박람회(Hanover Messe 2015)'에서 1억644만달러(1172억원가량)의 수출상담 실적을 올렸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서 한전은 한국전기산업진흥회와 공동으로 240㎡ 규모 전시관을 꾸려 대용전기와 선도전기, 엠파워, 케이피일렉트릭 등 19개 협력사의 제품을 전시했다.

전시관에는 'KEPCO 엠블렘'을 달고, 각 협력사 전시부스를 설치했으며 중국과

프랑스, 나이지리아 등 해외 바이어 735명이 방문해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한전은 대중소기업 협력재단과 함께 협력사들의 부스 임차비, 전시제품 운송비, 전시설치비, 통역비 등 박람회 행사 운영 비용을 100% 지원했다.

특히 신기술 컨퍼런스 참석을 통해 선진 기술 동향을 벤치마킹 하는 등 빛가람 에너지밸리의 에너지 신사업 역량 강화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을 다했다.

한전은 또 공동 수행기관인 한국전기산

업진흥회를 통해 유럽에너지어린 산업협회와 한·유럽 전기산업 교류 활성화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한전은 이번 박람회에서 수출 상담을 한 해외 유망 바이어들을 오는 10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한국전기산업대전(SIEF) 행사에 초청하는 등 수출 교류 확대를 추진하고 협력사들의 해외 시장 개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독일 하노버 산업박람회는 1947년부터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규모 국제 산업박람회로, 한전은 올해 세 번째로 참가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 수출유망 중기 지원 접수

광주·전남 중기청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류봉길)이 오는 5월6일까지 '2015년도 상반기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 사업은 수출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한 뒤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등 23개 수출지원 유관기관을 통해 각종 우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은 중소기업의 해외 이미지 제고를 통한 대외 신인도 증가 효과와 방위사업청 등 타 수출지원기관의 수출을 위한 해외마케팅 활용 효과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임동률기자exian@

### 호텔 등급 표시 별 디자인 공개

관광객 알기 쉽게 변경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2일 새로운 호텔 등급을 표시하는 별 디자인 기본안을 공개했다.

지난 40여년간 호텔업의 등급 표시로는 무궁화 문양이 사용됐다. 그러나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알기 쉽도록 지난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별로 변경했다.

디자인 개발업체인 마농탄도에 따르면 기본 콘셉트는 '유유자적(悠悠自適)'이다. 바탕색채는 정명한 하늘을 표현하기 위해 감청색(쪽빛)을 적용했다. 다만 5성급에는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고급스러움·고귀함·웅장미를 상징하는 고급갈색을 적용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새로운 현판 제작 소재로는 항공기 제작에도 사용되는 합금의 일종인 두랄루민을 적용했다. 가벼우면서도 반영구적인 내구성과 안정성을 높였고, 별을 반짝이는 은빛으로 처리해 현대적이고 세련된 분위기를 더했다.

문체부는 이달 말까지 행정예고 등을 거쳐 호텔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5월 초 호텔등급표지를 고시한다. 관광공사는 5월 중순까지 응용매뉴얼을 개발해 관광호텔들이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창사 63주년

**멋과 낭만이 있는 도시! 목포에 오시면 아름다운 자연과 먹거리가 있습니다**

신사우장권양전현력	K2장김약근수점	(주)대명문크승례호인	미즈아직원일동원	목포시의회	목포수산업협동조합	목포외식업중앙회	전남외식업중앙회	(주)부국상건현실	근대화장건중호(주)남	가산토경건(주)구	(주)상그리아비치호텔	신안관광비치호텔(주)	핑크돌고속펜리(주)혁영	(주)행남자석주기	목포시의회	목포시의회
-----------	----------	-------------	----------	-------	-----------	----------	----------	-----------	-------------	-----------	-------------	-------------	--------------	-----------	-------	-------